

GWANGJU

FOOTBALL CLUB

August & September 2014 / NO. 05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NEWS

후반기 광주의 첫 번째 목표는 4강! 이후엔 승격!
광주에 합류한 윤상호, 연착륙 노린다!
그 어떤 포지션보다 뜨거운 광주의 골키퍼 경쟁!
9~10월 미리보기, 강원 · 대전을 잡아라!

INTERVIEW

광주의 정신적 지주 마철준!
“매 경기가 나한테는 마지막 경기다!”

Next Home Match



광주 FC vs 안산 경찰청

09월 06일(토) 19:00



광주 FC vs 고양 Hi FC

09월 13일(토) 19:00



광주 FC vs FC 안양

09월 28일(일) 14:00



Hyundai Oilbank K LEAGUE CHALLENGE

※ 이 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광주의 첫 번째 목표는 4강! 이후엔 승격!



올 시즌 K리그 챌린지는 2014시즌 20라운드까지 치른 후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지며 전반기를 마감했다. 남기일 감독대행이 이끄는 광주 FC는 7월 27일 부천 FC와의 경기를 끝으로 6승 7무 7패 승점 25점을 획득하며 8위를 기록했다. 챌린지 무대 우승을 선언했던 목표와는 달리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남겼으나 애초 소원했던 클래식 승격 가능성은 아직 충분하다.

현재 광주의 목표는 4위권 내의 순위로 진입한 뒤, 내친김에 2위권까지 바라보고 있다. 올해 챌린지는 1위 팀에 클래식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 2위부터 4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생존 팀에 승강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진다. 1위 대전 시티즌의 독주 체제가 굳건해 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2위 진입을 목표로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전을 쏟을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광주는 지난 시즌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챌린지의 원년 시즌이었던 지난 2013년, 광주는 9월부터 11월까지만 8승을 쏘여 담으며 상주 상무, 경찰 축구단에 이어 3위로 시즌을 마감한 바 있다. 이 기간에 3연승을 두 차례나 기록하며 시민구단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마찬가지로 올해 광주의 하반기 출발은 산뜻하다. 8월 10일 21라운드 FC 안양과의 후반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고 23라운드까지 5경기 연속 무패(2승 3무)를 달리며 승점 쌓기에 탄력을 받았다. 리그는 막바지를 향할수록 승점 1점의 값어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올해는 더욱더 2위부터 8

위까지의 승점 차가 10점도 나지 않아 매 경기 피 튀기는 순위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광주의 무패 행진은 시즌 막판 순위 싸움에 있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광주가 원하는 승격의 목표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비라인의 안정화가 필요했다. 전반기 광주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압도하고도 종료 직전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에 발목을 잡히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휴식기를 통해 수비력을 점검한 뒤, 후반기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베테랑 마철준이 중앙 수비수로 복귀해 무게감을 실었고 이종민, 정호정, 김영빈 등 신구 조화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안정을 찾았다. 안정된 수비력은 승리로 가는 원동력을 만들어주었고, 승리를 만들진 못해도 승점 1점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선물할 수 있기에 광주는 이 강점을 앞세워 반격을 노리고 있다.

올해 광주를 향한 기대는 그 어떤 팀보다 더 컸다. 이름있는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며 질을 높여 K리그 클래식으로의 승격은 꿈만 같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 그만큼의 아쉬움도 많았다. 이제 광주는 지난 시즌 리그 3위라는 돌풍의 기억을 되새겨 올 시즌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아직 후반기 경기는 많이 남아있고 반전의 여지는 충분하다. 리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뿐이다.

광주에 합류한 윤상호, 연착륙 노린다!

지난 8월 10일(일), 광주 FC는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 안양과의 챌린지 2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렀다. 그런데 이 경기 선발 명단에는 낯선 이름이 쓰여 있었다. 바로 미드필더 윤상호였다.

광주 FC는 여름 이적시장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월 31일(목)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윤상호를 임대 영입했다. 1992년생의 불과한 윤상호는 공격적인 재능이 출중한 선수로 남기일 감독대행의 기대를 받으며 광주에 합류했다.

이미 윤상호의 광주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광주가 2014시즌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가장 눈독 들였던 선수 중 한 명이 윤상호였다. 하지만 윤상호는 인천에 1순위 지명을 받으며 아쉽게 광주와의 인연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 이적기간을 통해 광주의 러브콜을 받게 됐다. 그는 광주와의 인연도 있다. 금오중, 안동고를 거쳐 대학 시절을 호남대에서 보내며 승승장구했다. 안정적인 볼 컨트롤과 전방으로 뿌려주는 날카로운 패싱력으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

하지만 윤상호의 프로 생활은 찬란하진 않았다. 인천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고 프로 데뷔전도 치를 수 없었다. 그나마 FA컵 경기에서 한 차례 교체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광주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철치부심하며 후반기 첫 경기였던 안양전에서 당당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꿈에 그리던 자신의 리그 첫 데뷔전이였다.

이날 데뷔전에서 윤상호는 단 한 차례도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공격 전 진영에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 반경을 보이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 특히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팀플레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후 22라운드 충주 험멜과의 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한 윤상호는 23라운드에서도 교체 투입되며 3경기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가며 경기 감각을 살려가고 있다.

윤상호는 임대 신분으로 광주에 합류했지만, 프로 데뷔전을 광주에서 치렀을 만큼 애착심이 생겼다. 발전할 가능성이 출중한 만큼 그의 잠재적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에 그 잠재력을 올해 광주에서 폭발시켜 팬들을 열광케 하길 기대해본다.



윤상호 Yoon Sang Ho | No.38

1992.6.4 / 178cm, 67kg / MF

금오중 - 안동고 - 호남대 - 인천 유나이티드

그 어떤 포지션보다 뜨거운 광주의 골키퍼 경쟁!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던 2014 브라질 월드컵은 골키퍼들의 활약이 화두였다. 기본적인 선방 능력만 강조되던 골키퍼는 수비적인 능력을 넘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어 골키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했던 대회였다.

최근 광주 FC에서도 골키퍼들의 경쟁이 화두다. 팀의 최고참인 백민철을 필두로 올해 합류한 류원우, 막내 제종현까지 보이지 않는 뜨거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출전 기록만 보더라도 현재 광주의 주전 골키퍼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정도다. 백민철이 6경기, 류원우가 8경기, 제종현이 9경기를 출전하며 골키퍼 장갑을 나눠 끼고 있다.

먼저, 2000년부터 프로에 발을 내민 백민철은 특유의 노련함과 성실함으로 베테랑의 위용을 보여줬다. 비록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 난조를 보인 것이 아쉽지만, 그가 합류함으로써 류원우와 제종현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다.

전남 드래곤즈에서 임대되어 온 류원우의 활약도 있었다. 류원우는 올 시

즌 대구 FC와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서며 초반 4경기 연속 골문을 지켰고 11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선방 퍼레이드를 펼쳤다. 비록, 8경기에서 11실점을 허용하며 0점대 방어율에는 실패했으나 골키퍼 경쟁에 직접적으로 불을 지핀 장본인이다.

마지막으로 막내 제종현의 반란이 매서웠다. 제종현은 시즌 초반에는 선배들에게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6월 22일 15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부터 첫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그는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23라운드까지 9경기 동안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하며 광주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빠른 반사신경과 집중력으로 남기일 감독대행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제종현은 9경기에 출전해 5실점만을 허용하며 놀라운 선방력을 자랑했다.

이렇게 광주의 뒷문을 지키는 골키퍼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진정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 광주는 후반기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력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광주가 마주하고 있는 앞날은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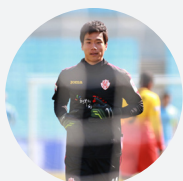
GK 류원우

4경기 연속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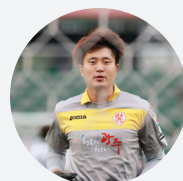
GK 백민철

6경기 연속 출전



GK 류원우

4경기 연속 출전



GK 제종현

9경기 연속 출전

1R
대구전4R 5R
대전전 부천전10R 11R
대전전 부천전14R 15R
안양전 수원전23R
대구전

9~10월 미리보기, 강원 · 대전을 잡아라!

올 시즌 K리그 챌린지의 마지막 경기는 11월 16일(일)이다. 리그 종료 시점이 불과 2~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FC는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선인 4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향해하고 있다.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승점 쌓기에 스피트를 내야 한다. 시즌 막바지에 시동이 걸린다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기에 9~10월에 있는 경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광주는 강원 FC와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VS  27R 09.17(수) A
33R 10.25(토) H

광주는 9월과 10월 각각 한 차례씩 대전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9월 17일(수)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 후, 10월 25일(토) 홈으로 돌아와 33라운드 리턴 매치를 가진다. 대전전이 갖는 의미는 크다. 대전은 현재 챌린지 단독 선두로 큰 이변이 없는 한 클래식 직행 티켓을 손에 거머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위권 다툼이 혼전 상황이기때문에 광주가 대전을 꺾고 기세를 올릴 수만 있다면 남은 경기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대전전은 광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다. 올 시즌 광주는 대전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시즌 개막 직전까지 광주는 대전과 함께 우승후보로 꼽히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막상 휘슬이 울리자 대전과 광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0-4로 대패했고 10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0-2로 패배했다. 2경기 동안 1골도 터트리지 못했고 6실점만 허용했다. 이 때문에 광주 선수단은 벌써 대전과의 맞대결을 기다리고 있다. 9월, 10월 두 차례 만남에서는 광주가 복수혈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VS  28R 9.21(일) A

강원과 맞대결은 9월 21일(일) 28라운드 원정 경기다. 유독 광주는 강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다. 더군다나 광주가 약한 원정 경기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는 강원에게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더 잃을 것이 없다.

지난 5월 열린 8라운드 강원 원정 경기에서 광주는 선제골을 뽑으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후반 27분 동점 골, 후반 종료 직전 역전 골을 허용하며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복수를 노렸던 6월 8일(일) 홈 경기에서도 비슷한 경기 양상이 나왔다. 후반 17분 김호남의 골로 광주가 앞섰지만, 또 다시 경기 종료 직전 강원 서보민에게 동점 골을 내주며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상할 정도로 광주는 강원만 만나면 후반 막판 집중력 부재에 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후반기 광주는 수비진의 조직력을 갖추면서 뒷문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또한, 강원과 승점 시소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신적 지주 마철준,
“매 경기가 나한테는
마지막 경기다!”

No.13 **DF**

마철준 Ma Chul Jun

1980.11.16 / 180cm, 70kg / DF (수비수)

경희대 - 부천 SK - 제주 유나이티드 -

광주 상무 - 전북 현대

Q. 광주 월간 매거진 메인 모델로 선정되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팀에 많은 선수가 있는데 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웃음)

Q.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서면서 연이은 무실점 경기를 펼치셨어요. '마철준 효과' 아닌가요?

아니에요.(웃음) 후배들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움직여줘서 가능했던 일이지. 제가 항상 선수들에게 우리가 공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해요. 항상 상대 공격수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죠.

Q. 1980년생의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배들보다 더 그라운드를 누비고 계세요.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하실 것 같아요.

세끼 먹고 잘 자는 것밖에 없어요.(웃음) 제 생각은 몸이 좋지 않더라도 경기장에서 집중만 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후배들도 제가 몸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웃음)

Q. 흥미로운 점이 지난해 9월 플레이 코치로 보직을 변경하셨어요.

코칭 스태프에 변화가 생겨 남기일 감독님께서 플레이 코치를 맡으셔서 선수들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보직이 변경되니까 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년 시즌이 끝난 뒤 많은 것을 느끼면서 한 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Q. 플레이 코치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작년에는 선수로 생활하면서 후배들이 형이라고 불렀는데, 올해는 선생님을 짧게 이야기하는 쌤으로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듣기 거북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감독님께서도 받아들이라고 하시고 불리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형이라는 소리가 좋아요. 나중엔 어차피 코치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요.(웃음)

Q. 프로 12년차이신데, 2004년 부천에서의 데뷔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시나요?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였는데 팀 성적이 좋지 않아 2군으로 선수가 바뀌어 기회를 잡았죠. 다행히 전반전에 1-1로 비기며 선전했어요. 결론은 졌지만, 뭣도 모르고 데뷔전을 뛰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정해성 감독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프로에 와서 실력이 떨어진 걸 느끼고 하루에 4번 정도 운동을 했어요. 그 점을 보시고 감독님께서 경기에 내보내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회복이 잘 안 돼요. 휴식이 최고예요.(웃음)

Q. 지금 와서 보면 후배들이 하는 행동이 다 보이시겠어요.

플레이 코치로 바뀐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다 알고 있죠.(웃음) 그런 면에서 능글맞은 선수는 여름이예요. 말은 많아도 치고 빠질 때를 잘 아는 선수예요.(웃음)

Q.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특별 활동시간에 축구부 테스트가 있었어요. 한 반에 40~50명 정도 있는 3학년 전체를 모두 테스트했는데 12명 안에 뽑혔어요. 아버지께서는 힘든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셔서 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공부는 정말 아니었어요.(웃음)

Q. 포항제철중, 포철공고를 나오셨어요. 어릴 적에는 어떤 선수였나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수는 아니었죠. 저는 실력이 없었어요.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선수였어요. 지금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감독님들은 지금까지 제가 축구를 할 줄 모르셨다고들 하세요.(웃음)

Q. 프로 입단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당시 마지막 대회 결승전에서 숭실대에 지며 준우승을 했어요. 제가 페널티킥을 내주고 퇴장을 당해 진 거였죠. 그것 때문에 원래 가기로 했던 프로팀이 취소됐어요.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다행히, 이영무 감독님께서 할렐루야로 오라고 하셔서 갔다가 다시 나와 부천에서 테스트를 봤어요. 한 달 정도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감독직이 정해성 감독님으로 바뀌게 됐어요. 공개 테스트로 바뀌었고, 일주일 정도 한 뒤 뽑혔죠. 1200만 원짜리 선수였어요.(웃음)

Q. K리그 통산 200경기를 넘어섰는데, 지금 와서 과거를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10년 제주에서 준우승했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당시 축구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축구를 하고 있어 기억에 남죠. 그리고 정해성 감독님도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저를 발탁해주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저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야죠. 지금은 한 경기 나갈 때마다 선수들에게 “너희들은 많은 경기 중 한 경기일 줄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마지막 경기다. 너희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나날 경기가 많겠지만, 나는 이 경기가 끝나면 못 나갈 수도 있다. 나를 좀 더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Q. 최고참급에 있으신데, 장단점을 하나씩 꼽아주세요.

장점은 누구 눈치를 안 보고 축구를 한다는 거죠. 단점은 플레이 코치니까 오히려 제가 선수들 눈치를 보게 돼요. 선수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대충하면 따라 할까 봐 눈치를 보는 거죠.(웃음)

Q. 축구 인생에서 마철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희생, 헌신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희생했던 선수, 헌신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광주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 드려요.

선수단 전원이 죽기 살기로 할 테니까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무조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죠!

2014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대행	김영철 수석코치	카를로스 피지컬코치	알베스 GK 코치	주치의 이준영	GK 제종현	GK 백민철
						
GK 류원우	DF 정준연	DF 전준형	DF 최성환	DF 이완	DF 마철준	DF 김영민
						
DF 이종민	DF 박진옥	DF 오도현	DF 정호정	MF 여름	MF 김민수	MF 김유성
						
MF 김우철	MF 권수현	MF 송승민	MF 홍태곤	MF 조용태	MF 박현	MF 윤상호
						
MF 이찬동	FW 임선영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안중훈	FW 디에고	그리고 광주FC를 응원하는 여러분이 바로 12천만 선수입니다!

2014시즌 홈 경기 일정

09월 06일(토) 19:00		VS 안산 경천청
09월 13일(토) 19:00		VS 고양 Hi FC
09월 28일(일) 14:00		VS FC 안양
10월 11일(토) 14:00		VS 대구 FC
10월 25일(토) 14:00		VS 대전 시티즌



광주 FC 많이 응원해 주세요!

광주FC SNS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발행일 2014년 09월 06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c)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